

# “일주일 뒤에 갈지도”...현실이 된 김하성·최지만의 한솔밥

최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에 샌디에이고행  
김하성 “시너지 효과 날 것 같다” 기대감 ↑

최지만(32)의 농담은 일주일 뒤에 현실이 됐다. 트레이드 시장이 열려있던 일주일 전 최지만은 전직 박리 강정호(36)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김하성(27)과 함께 출연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적을 예상했다. 최지만은 “일주일 뒤에 여기(샌디에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김하성은 “우리 팀이 (최지만을) 데려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무심코 던진 농담은 현실이 됐다. 최지만은 트레이드 마감일이었던 지난 2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됐다. 샌디에이고가 최지만과 좌완 리치 힐을 받고, 피츠버그에 유망주 잭 울프, 에스투아르 수에로, 알폰소 리바스 등 3명을 내주는 트레이드를 단행

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매체 스포츠760의 마티 캐스웰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에 김하성·최지만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최지만은 “일주일 전에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현실이 돼서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하성은 “한국선수가 온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다. 팀이 이기기 위해 (최)지만이형을 트레이드로 데려온 것이어서 더 기쁘다”고 환영했다. 샌디에이고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러있지만, 가을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팀에 장타를 갖춘 좌타자가 필요했고, 최종 선택은 최지만이었다. 최지만은 “나는 매년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팀에서 뛰었다. 좋은 기운이 있다”며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이다. 매 경기 중요하고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성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팀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지만이형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김하성과 최지만은 전날 LA 다저스와의 경기에 동반 출격했다. 리드오프 김하성이 4타수 2안타 1볼넷으로 활약을 펼쳤고, 최지만은 2볼넷 2득점으로 타선에 힘을 보탤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최지만(사진 오른쪽)과 김하성이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코파크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LA다저스와의 경기에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배지환(왼쪽).

ML 복귀 가까워지나...  
배지환, 재활경기 훈련

피츠버그 파이리츠 배지환이 세 번째 재활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했다. 피츠버그 산하 트리플A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에서 활약 중인 배지환은 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플레이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산하 트리플A 귀넷 스트라이퍼스와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홈런 1볼넷 활약을 펼쳤다. 6회 선두타자로 등장한 배지환은 선발투수 앨런 위난스의 초구 82.4마일(약 132.6km) 체인지업을 공략해 외야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1점 홈런을 터뜨렸다. 올해 마이너리그에서 기록한 첫 안타다.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는 1-5 패배를 당했다. 배지환의 홈런이 팀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지난달 2일 발목 부상  
재활 경기 3경기 소화

배지환은 지난달 2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주루 도중 발목 통증을 느꼈고, 이튿날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 캐치볼과 수비 훈련을 소화하며 재활 단계를 밟은 배지환은 지난 2일부터 마이너리그 트리플A 경기에 나섰다. 첫 경기에서 볼넷과 득점을 기록했고, 다음 경기에서는 안타를 신고했다. 배지환은 트리플A 3경기에서 9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 성적을 냈다. 안타에 이어 홈런도 날리며 순조롭게 복귀가 복귀를 준비 중이다. 귀넷 스트라이퍼스에서 활약 중인 박효준은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박효준은 올해 트리플A 69경기에서 출전해 타율 0.282 5홈런 29타점 10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798을 기록했다.

뉴스

## 전남도청 최세빈, 2023 세계펜싱선수권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



2023 펜싱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사브르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한 여자대표팀 (왼쪽부터 전하영, 윤지수(이상 서울시청), 전은혜(인천중구청), 최세빈(전남도청))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사브르)이 2023 세계펜싱선수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라남도는 7월30일(한국시간) 전남도청 펜싱팀 최세빈(사브르)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여자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최세빈(전남도청), 전은혜(인천중구청), 전하영, 윤지수(이상 서울시청)으로 구성된 여자 사브르 대표팀(세계2위)은 32강전 부진승, 16강전에서 튀르키예를 만나 45:21로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 강팀 아제르바이잔(세계8위)을 만나, 45:43로 승리하며, 힘겹게 승리해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전(4강)에서 ‘강팀’ 헝가리(세계3위)를 만나 39:45로 패하며, 3·4위전에서 세계

랭킹 6위 우크라이나를 만나 45:32로 승리, 최종순위 3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결승에서는 헝가리와 프랑스가 만나 경기를 치렀으며 45:38로 헝가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세계선수권이라는 큰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의 위상과 명예를 높여줘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용욱 대표팀 총감독(전남도청 감독)은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이라는 큰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다”며 선수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열심히 훈련해 항저우아시아안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세빈은 지난 알제 월드컵 동메달, 타슈켄트 월드컵 동메달, 아테네 월드컵 은메달, 벨기에 신트니클라스 월드컵 금메달에 이어 세계선수권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5연속 국제대회 입상을 하는 쾌거를 거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셀틱 양현준, 교체로 리그 데뷔...오현규·권혁규 출전 불발



양현준, 후반 33분 교체 투입  
가벼운 몸놀림 저돌적 드리블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한 양현준이 5일(한국시간) 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셀틱은 이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셀틱 파크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1라운드 로스카운티전에서 4-2로 이겼다. 한국인 3인방 중 양현준이 이날 출전 기회를 잡았다. 양현준은 데이비드 터널의 2골과 후루하시 요고, 맷 오일리의 골로 4-1까지 앞서나간 후반 33분 리얼 아바다를 대신해 교체 투입

됐다. 양현준은 교체 투입되자마자 상대 페널티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관중 환호를 이끌어냈다. 양현준은 후반 41분에는 수비에 가담해 상대 득점 기회를 차단한 뒤 동료 하타데 레오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다. 이어진 연습에서 득점 기회가 생겼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양현준은 가벼운 몸놀림으로 드리블을 계속 시도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양현준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터치가 길어 공을 뺏겼다. 셀틱은 경기 종료 직전 1골을 허용해 4-2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셀틱 내 한국인 3인방 중 오현규와 권혁규는 이날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뉴스

## 장흥군 볼링 신동 송민준, 전국학생볼링 개인전 우승 4경기 합계 832점...전라남도지사기배 이어 2번째 금메달



장흥초등학교 5학년 송민준 학생이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볼링대회에서 초등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1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송민준 학생은 개인전 4경기 합계 832점(평균 208)을 기록했다. 송민준 학생은 지난 제27회 전라남도지사기배 중별볼링대회에 이어 2번째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놀라운 것은 이같은 수상 내역 모두 볼링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이룬 성적이란 점이다. 송민준 군은 “열심히 훈련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볼링선수가 되고 싶다”며 포

정흥=김도영기자

## 한국 양궁 컴파운드, 세계선수권서 여자 단체전만 동메달 1개로 마감

한국 양궁 컴파운드 대표팀이 2023 베를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김중호(현대제철)는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대회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동메달결정전에서 마이크 솔로세르(네덜란드)에게 147-148로 패했다. 컴파운드 종목의 마지막 일정이었다. 이로써 이번 대회에서 한국 컴파운드 대표팀이 획득한 메달은 여자 단체전의 동메달이 유일하다. 오유현(전북도청), 소재원(사진), 송윤수(이상 현대모비스)가 호흡을 맞췄다. 컴파운드 대표팀은 2021년 양크턴대회에서도 혼성전 동메달 1개만 목에 걸었다. 국제대회에서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 리커브와 달리 기계식 활을 쓰는 컴파운드는 고전하는 모습이 잦다. 대한양궁협회는 컴파운드 종목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올해 2월 리오 와일드(미국) 감독을 영입하기도 했다. 한편, 컴파운드는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지만 아시안게임에선 정식종목이다.